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2):44-51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Vol. 16, No. 2, 2004;44-51
http://www.esasang.com

性情에 의한 表裏病證의 발생기전에 관한 考察

고우석·이수경·이의주·고병희·송일병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Study for the mechanism of exteriror, interior disease by the nature and emotion

Ko Woo-Seok·Lee Soo-Kyung·Lee Eui-Ju·Ko Byung-Hee·Song Il-Byung

Dept.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1. Objectives

This paper is written for clear understanding on the concepts of 'Deep adherence of the Nature' and 'Sudden explosion of the Emotion' and for intensive comprehension of Mechanism of 'The Exterior Disease' and 'The Interior Disease' by The Nature and the Emotion.

2. Methods

The study mainly based on "The exterior disease injured by the Nature, the interior disease injured by the Emotion" and deals with 'Seongmyungron, Sadanron, Hwarkchungron and Jangburon'.

3. Results and conclusions

The conclusions as follows

(1) Exterior Disease in each constitution breaks out by deep adherence of the Nature. Interior Disease brings out with sudden explosion of the Emotion.

(2) 'Deep adherence of the Nature' is the state that the Ear, Eye, Nose, Mouth taking care of environmental frames can't work enoughly because of wrong minds on the Jaw, Breast, Umbilicus, Abdment. 'Sudden explosion of the Emotion' is the state that the Lung, Spleen, Liver, Kidney doing human affairs doesn't do appropriately for each constitution due to negative minds on the Head, Shoulder, Waist, Hip.

(3) The result that the Ear, Eye, Nose, Mouth doesn't extract the clear energy from 'Jin, Go, You, Yaek sea' so they are lack of 'Shin, Qi, Hyul, Jeong' causes exterior disease in each constitution.

(4) In each constitution, Interior disease results from that the Lung, Spleen, Liver, Kidney fails to bring on the clear juice from 'Lee, Mak, Hyul, Jeong sea', so shortage of 'Jin, go, You, Yaek' results in it.

Key Words: The exterior disease, the interior disease, deep adherence of the nature, sudden explosion of the emotion

I. 緖 論

東武 李濟馬(1837-1900)는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四象哲學의 핵심인 天人性命의 四象구조를 밝히고 「四端論」에서 哀怒喜樂 性情의 相成, 相資의 원리와 順動, 逆動의 원리를 통하여 臟腑의 大小에 의한 四象人 성립의 당위성을 밝히고, 「擴充論」에서 각 四象人이 갖는 性情의 특징 및 反省하고 경계할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臟腑論」에서 前後四海論에 의한 水穀의 대사과정을 통하여 四象醫學의 生理觀을 구체화했다[1].

한편 東武는 각 體質病證論에서 病證을 치료함에 있어 用藥과 調養을 같이 중시하였는데 여기서 調養이라 함은 養生과 같은 뜻으로서 여러 방법에

·접수일 2004년 7월 10일; 승인일 2004년 8월 10일
·교신저자 : 송일병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82-2-958-9233, Fax: +82-2-958-9234
E-mail: ibsong@khmc.or.kr

의한 養生法이 있을 수 있지만 四象人의 각 체질을 결정짓고 또 素證과 體質病證을 결정짓는 요소인 性情을 잘 다스림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東武는 「醫源論」에서 "三陰三陽者 辨證之同異也 其理 在於腹背表裏而 不必究其經絡之變也"라 하여 각 體質의 病證을 구별하는 이치는 腹背表裏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體質病證은 크게 表裏를 구분하고 각각의 病證들이 나타나는 부위가 腹背 中의 어디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장 먼저 表病證과 裏病證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 발생기전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表裏病證의 개념규정을 비롯, 발생기전에 관한 연구로는 최근에 郭[2]의 "四象人 體質病證中 表病과 裏病의 개념규정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趙[3]의 "性情과 表裏證과의 관계", 朴[4]의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 李[5]의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의 病證論에 관한 연구", 崔[6]의 "四象醫學에서의 陰陽寒熱表裏虛實病理의 變用" 등이 있다.

한편 이러한 연구들에 있어서 表裏病證은 「太陽人內觸小腸論」에 나오는 "性이 深着하면 表氣를 傷하고 情이 暴發(浪發)하면 裏氣를 傷한다"는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性의 深着이나 情의 促急, 暴發, 浪發 등에 대한 용어의 해석과 또 그러한 性情에 의해 表裏病證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기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東醫壽世保元 「太陽人內觸小腸病論」의 "太陽人 哀心深着則 傷表氣 怒心暴發則 傷裏氣"의 내용을 근간으로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을 중심으로 深着, 暴發, 促急 등의 용어에 관한 해석과 함께 性情에 의해 表裏病證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기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硏究方法

1. 表病證과 裏病證의 개념 정의

『東醫壽世保元』에서 각 體質病證論은 크게 表病證과 裏病證으로 구분할수 있다.

그러나 사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甲午舊本」이나 「辛丑本」을 통해 볼 때 각 體質의 表病證이나 裏病證이란 직접적인 용어나 분류는 없다.

단지 현실적으로 少陰人篇을 예로 들면 甲午舊本의 「少陰人 外感脅病論」과 「辛丑本」의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등을 表病證으로 구분하고 甲午本의 「少陰人 內觸胃病論」과 「辛丑本」의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을 裏病證의 범주로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外感이나 表熱, 表寒이란 용어가 들어간 篇名을 表病證으로 內觸이나 裏寒, 裏熱의 용어가 들어간 篇名을 裏病證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통용되어 쓰이고 있는 각 體質의 表病證과 裏病證의 구분은 다분히 공통의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큰 범주의 表裏의 개념 외에 각 表裏病證論 안에 表裏俱病, 表氣, 裏氣, 表裏陰陽 등 表裏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모호해지는 측면, 表裏病證을 치료하는데 있어 각 體質藥과 體質處方에 있어서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면, 또한 證治醫學에 있어서의 表裏의 개념과의 차이 등에 관해서는 본 논문에서는 논외로 하고 각 體質病證의 커다란 두 분류로서의 表裏를 뜻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2. 太陽人論의 篇名과 내용에 관한 신뢰성

東武는 『東醫壽世保元』甲午本을 저술한 후 6년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辛丑本」에서는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 그리고 「病證論」 中 太陽人篇을 제외한 「醫源論」,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病證論」의 篇名과 내용을 개초하였다.

특히 表裏病證의 篇名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개초하였다.

少陰人 外感脅病論 → 少陰人 腎受熱表熱病
少陰人 內觸胃病論 → 少陰人 胃受寒裏寒病
少陽人 外感膀胱病 → 少陽人 脾受寒表寒病
少陽人 內觸大腸病論→少陽人 胃受熱裏熱病
太陰人 外感腦顧病論→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論
太陰人 內觸胃脘病論→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太陽人 外感腰脊病論→太陽人 外感腰脊病論
太陽人 內觸小腸病論→太陽人 內觸小腸病論

여기에 대해 朴[4]은 甲午版 病證論 篇名은 李濟馬가 자신의 四象哲學을 새로운 醫學理論으로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四象哲學과 醫學理論의 일관성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며, 「辛丑本」 病證論 篇名은 초기 의학이론이 설정되고 난 후 축적된 임상경험과 의학이론을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나타나는 四象人 體質病證의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귀납적이고 실증적인 의학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견해로 李[5]는 太少陰陽人 病證의 초기 인식은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의 天氣와 人事에 대한 能否가 단서였으나 임상경험이 축적되면서 病證 발현의 病理를 적절하게 제시하기 위해 表裏病證을 새롭게 요약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만일 太陰人과 太陽人의 體質證과 體質病證이 더욱 밝혀진다면 새로 발견된 病證을 포괄할수 있는 病理로 表裏病證의 篇名을 다시 썼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郭[2]은 「辛丑本」에 나타난 表病과 裏病의 개념은 病의 원인의 구분에서 체질별로 반응하는 병의 성질(증상특징)에 의한 구분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고 病證도 八綱(表裏 寒熱 虛實 陰陽)을 모두 포괄하는 보다 완성된 개념을 가진다고 하였다. 특히 表裏와 寒熱은 서로 결합되어 나타나는데 다만, 太陽人의 경우는 病證의 특징상 寒熱虛實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八綱을 위주로 한 病證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篇名도 바꾸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로 볼 때 太陽人 篇의 表裏病證 篇名과 내용의 정확성 내지 완전성에 관한 신뢰여부에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만일 그렇다면 앞에 총론부분에 해당하고 사상인의 생리과 병리의 근거가 되는 性命論부터 臟腑論의 내용도 한꺼번에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오류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살펴볼 때 「辛丑本」에 개초된 篇名이 실제 나타난 體質病證의 특징이나 病證發現의 病理를 적절히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본 논문에서 論하고자 하는 性情에 의한 表裏病證의 개념과 발생기전을 밝히는 데는 차라리 개초되지 않은 (朴[4]의 논문에 의하면 '사상철학과 의학이론의 일관성을 수립하고자 제시된') 太陽人 病證論의 篇名과 내용을 근간으로 삼는게 더욱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3. 性情에 의한 표리병증 발생의 타당성

현재 表病證과 裏病證의 발생원인 및 기전에 관한 東武의 직접적인 설명은 「太陽人 內觸小腸病論」에 제시되어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해서이다.

"或曰 吾子論 太陽人解伬病治法 曰 戒深哀 遠嗔怒 修淸定 論噎膈病治法 曰 遠嗔怒 斷厚味 意者太陽人 解伬病 重於噎膈病而 哀心所傷者 重於怒心所傷乎?

曰 否 太陽人 噎膈病 太重於解伬病而 怒心所傷者 太重於哀心所傷也 太陽人 哀心深着則 傷表氣怒心暴發則 傷裡氣 故 解伬表證 以戒哀遠怒 兼言之也

曰 然則 少陽人 怒性 傷口膀胱氣 哀情 傷腎大腸氣 少陰人 樂性 傷目膂氣 喜情 傷脾胃氣 太陰人喜性 傷耳腦顧氣 樂情 傷肺胃脘氣乎?

曰 然"

위의 내용에 의하여 性情에 의해 表裏病證이 발생한다는 규정, 즉 性의 深着에 의해 表病이 발생하게 되고 情의 暴發(浪發)에 의해 裏病이 생긴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太陽人 解伬病을 치료하는데 戒深哀 遠嗔怒하라고 한 이유와 噎膈病에는 遠嗔怒만 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위의 내용을 더 정확히 해석하여 보면 이는 太陽人 表病證 즉 解伬病의 진행과정에서 性情의 相成, 相資원리에 의하여 情暴發이 발생하여 裏病證狀이 겸하여 나타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表病證에서 表裏俱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른 체질에서도 表病證의 진행과정에 있을 때는 太陽人 解伬病에서 戒深哀하는 것 외에 遠嗔怒하여야 하는 것처럼 각 체질별로 情暴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裏病證에 있어서는 이러한 情暴發이 性深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발생하여 病證이 유발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趙[3]는 性情의 相成, 相資의 논리에 의해 性情에 의한 表裏개념이 완전 이분된 개념이 아니라고 하고 性情상호간의 연계성을 제시하면서 이는 前後 四海가 天機 人事의 양축에 의하여 순환하는 이유와 같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논리가 情暴發에 의한 裏病證의 진행과정에서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性이 極하면 情이 동한다는 개념은 表病證의 발생 이후의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性의 深着에 의한 表病의 발생과 情의 暴發(浪發)에 의한 裏病의 발생기전만을 다루기로 한다.

Ⅲ. 本論 및 考察

東武는 『東醫壽世保元』에서 인간은 각기 다른 性情의 偏差에 의해 네가지 체질로 구분되고 각기 天機와 人事를 살핌에 能하고 能하지 못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性命論」에서 "人之耳目鼻口 好善無雙也 人之肺脾肝腎 惡惡無雙也"라 하고 또한 "好善之實 極公則亦極無私也, 惡惡之實 極無私也 極無私則亦極公也"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의 天氣와 人事에 대한 能, 不能에 의해서 인체의 질병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따로 인간이기 때문에 생겨나기 쉬운 頷臆臍腹과 頭肩腰臀에 邪心과 怠心을 제시하고 知行과 人事之修不修를 중시하였다.

따라서 性情에 의한 表病과 裏病證의 발생기전에 대해서도 이러한 논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性情에 의한 表裏病證이 발생되는 기전에 대하여 性深着, 情促急, 情暴發(浪發)의 의미해석과 함께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의 내용을 토대로 알아보고자 한다.

1. 性深着에 의한 表病證 발생기전

「性命論」을 통해 볼 때 性과 관련되는 것은 天機(天時, 世會, 人倫, 地方-大同), 耳目鼻口, 頷臆臍腹, 知(籌策, 經倫, 行檢, 度量-博通), 邪心(驕矜伐夸之心) 등의 개념이다.

즉 天機를 살피는 것은 耳目鼻口인데 이러한 人之耳目鼻口는 好善이 無雙也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耳目鼻口의 天機를 살피는 능력은 각 四象人別로 能한 부분과 能하지 못한 부분이 있게 되며 여기서 바로 性深着의 상태가 발생하고 表病證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깊이 들러붙는다, 깊이 고착된다라는 의미의 深着이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이며 또 그러한 性深着상태가 어떠한 기전으로 表病證을 발생시키는가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四端論」에서 太陽人은 哀性遠散하고, 少陽人은 怒性宏包하고, 太陰人은 喜性廣張하고, 少陰人은 樂性深確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擴充論」에서는 이러한 哀性, 怒性, 喜性, 樂性은 각각 天時, 世會, 人倫, 地方이라는 天氣를 살피는 것, 즉 聽視嗅味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렇지만 天機를 살필수 있는 耳目鼻口의 능력에 있어서도 각 체질별로 능히 廣博하는것과 능히 廣博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性深着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太陽人은 "太陽之耳 能廣博於天時 而太陽之鼻 不能廣博於人倫"이라 하였으므로 太陽人의 表病의 원인 즉 哀性深着의 의미는 이 두 가지와 연관지어 설명이 가능하다.

여기서 東武는 다음 조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 기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는데

"太陽之聽 能廣博於天時故 太陽之神 充足於頭腦而 歸肺者 大也

太陽之嗅 不能廣博於人倫故 太陽之血 不充足於腰脊而 歸肝者 小也"라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哀性이 深着한 것과 傷表氣, 즉 傷鼻腰脊氣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다음 두 조문 "太陽之性氣恒慾進而不慾退", "太陽之進 量可而進也 自反其材而不壯 不能進也"라 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즉 太陽人의 哀性이 遠散하게 펼쳐지는 樣態, 즉 그 哀性의 기운은 "進"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따라서 哀性이 遠散하게 펼쳐지지 못하게 되는 樣態를 深着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은 "進"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自反其材而不壯"이란 뜻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擴充論」의 마지막 조문 "太陽之臍宜戒伐心 太陽之臍 若無伐心 絶世之行檢 必在此也"라 한 대목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自反其材

의 "材"를 知慧 즉 行檢으로 해석하면 그 行檢을 스스로 돌이켜보아 많이 쌓여있지 않으면 나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즉 지혜가 있어야만 太陽人의 性氣를 잘 펼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항상 邪心이 無雙한 臍에는 伐心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伐心 으로 인해 태양인도 行檢이 쌓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太陽人은 性氣가 深着되지 않고 進할 수 있으려면 臍에 伐心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行檢이 쌓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伐心이 전혀 생기지 않아 行檢이 계속 쌓이게 된다면 絶世의 行檢이 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태양인이 哀性이 深着된 상태라면 이미 太陽人의 臍에 伐心이 있어 行檢이 不足한 상태가 되므로(이를 다른말로 표현하면 太陽人의 耳가 遠聽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이미 太陽人의 鼻도 또한 廣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전은 각 체질의 病證發現에 있어 偏大之臟보다는 偏小之臟의 손상여부가 관건이 된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太陽人이 "鼻 以廣博人倫之嗅力 提出油海之淸氣 充滿於中下焦 爲血而注之腰脊 爲凝血 積累爲血海"의 기전에 더욱 문제가 생겨 결국 鼻腰脊氣가 傷하는 表病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伐心은 太陽人의 鼻가 油海의 淸氣를 提出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性의 深着의 뜻은 그 好善이 無雙한 耳目鼻口의 性을 펼쳐나가는 데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頷臆臍腹에 驕矜伐夸의 邪心이 생기기 쉬운 상태를 存其心養其性하여야만 性이 深着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天生萬民 性以慧覺 萬民之生也 有慧覺則生 無慧覺則死)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부연하여 설명하면 表病이 전혀 없는 상태는 絶世의 知(籌策, 經倫, 行檢, 度量)가 있어야 하며 逆으로 表病의 예방은 絶世의 知에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性深着에 의한 表病證의 발생기전은 臟腑論에서 말한 耳目鼻口之用의 淺近狹少에 의한 精神氣血의 손상(耗)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를 모든 체질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Table 1.).

2. 情暴發(浪發)에 의한 裏病證 발생기전

「性命論」을 통해 볼 때 情과 관련되는 것은 人事(事務, 交遇, 黨與, 居處-各立), 肺脾肝腎, 頭肩腰臀, 行(識見, 威儀, 材幹, 力略-獨行), 怠心(奪侈懶竊之心) 등의 개념이다.

情의 暴發, 浪發이란 즉 喜怒哀樂의 情이 급격히, 물결치듯 발현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東武는 情의 발현에 대해서 각체질의 臟局形成에 관련하여서는 情促急이라고 주로 표현하고 다른 병리적인 설명을 한 부분에서는 暴怒, 暴哀, 浪喜, 浪樂, 偏哀, 偏怒, 偏喜, 偏樂의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太陽人에 관한 부분만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太陽人 怒情促急者 太陽之脾 行於交遇而 怒別人之侮己也 怒情 非他 怒也

太陽之怒 能勇統於交遇故 交遇 不侮也 太陽之喜 不能雅立於黨與故 黨與 侮也

是故 太陽之暴怒 不在於交遇而 必在於黨與也

太陽之交遇 可以怒治之而 黨與 不可以怒治之若遷怒於黨與則 無益於黨與而 肝傷也

Table 1. The Mechanism of 'The Exterior Disease' in each constitution

太陽人	恒慾進而 不能進 ⇒ 哀性深着	耳 不能遠聽	鼻 不能廣嗅	無行檢(自反其材而不莊)	伐心 ⇒ 表病
	存其心養其性	耳 能遠聽	鼻 能廣嗅	絶世之行檢	無伐心 ⇒ 無表病
少陽人	恒慾擧而 不能擧 ⇒ 怒性深着	目 不能大視	口 不能深味	無度量(自反其力而不固)	夸心 ⇒ 表病
	存其心養其性	目 能大視	口 能深味	絶世之度量	無夸心 ⇒ 無表病
太陰人	恒慾靜而 不能靜 ⇒ 喜性深着	鼻 不能廣嗅	耳 不能遠聽	無籌策(自反其知而不周)	驕心 ⇒ 表病
	存其心養其性	鼻 能廣嗅	耳 能遠聽	絶世之籌策	無驕心 ⇒ 無表病
少陰人	恒慾處而 不能處 ⇒ 樂性深着	口 不能深味	目 不能大視	無經倫(自反其謀而不弘)	矜心 ⇒ 表病
	存其心養其性	口 能深味	目 能大視	絶世之經倫	無矜心 ⇒ 無表病

太陽人 謹於交遇故 恒有交遇生疎人慮患之怒心 此心 出於秉彝之敬心 莫非至善而 輕於黨與故 每爲親熟黨與人所陷而 偏怒傷臟 以其擇交之心 不廣故也"

이로 미루어 볼 때 각 체질에 있어 情促急의 상태도 人事를 행할 때 나타나는 감정상태이나 체질별로 能한 人事부분에서 나타날 때는 惡惡이 無雙한 肺脾肝腎의 능력으로 그걸 각각 努力, 哀力, 喜力, 樂力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체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체질별로 能하지 못한 人事를 행할 때 나타나고 그래서 인체에 병증을 나타낼수 있는 감정상태는 情暴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情의 暴發, 浪發이 어떻게 傷裏氣하여 裏病을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太陽人 怒情暴發을 예로 알아보자.

일단 太陽人이 人事를 行할 때의 情의 樣相은 "太陽之情氣 恒慾爲雄 而不慾爲雌"라고 하여 雄의 樣態가 太陽人이 交遇를 행할 때 나타나는 情氣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조문에 이러한 太陽人의 情氣가 올바로 발휘되기 위한 조건으로 "太陽之人 雖好爲雄 亦或宜雌 若全好爲雄則 放縱之心 必過也"라고 하였다.

이를 부연하여 설명해보면 太陽人은 人事에 있어 能한 부분인 交遇를 행할 때는 비록 수컷의 입장이 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도 되지만("太陽人 謹於交遇故 恒有交遇生疎人慮患之怒心 此心 出於秉彝之敬心也 莫非至善") 不能한 부분인 黨與를 행할 때는 때때로 암컷의 입장이 되도록 해야만 放縱之心이 생기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暴怒, 偏怒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고 만일 太陽人이 放縱之心을 過하게 가져 黨與에 있어서 怒情暴發(偏怒)이 생긴다면 肝을 더욱 傷하여 "肝 以鍊達黨與之喜力 吸得血海之淸汁 入于肝 以滋肝元而 內以擁護油海 鼓動其氣 凝聚其油"의 기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傷肝小腸氣하는 裏病이 발생한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 이르지 않고 裏病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擴充論」의 마지막 조문에 "太陽之臀 宜戒竊心 太陽之臀 若無竊心 大人之方略 必在此也" 라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서 해답을 찾을수 있다.

여기서 竊心(竊物也)은 臀에 생기기 쉬운 怠心인데, 이러한 竊心이 생기면 黨與에 能하지 못하게 되며 少陰人이 黨與에 能함은 이러한 竊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黨與에 能하지 못한 太陽人이 항상 수컷만 되려 하지 않고 때때로 암컷이 되어 黨與도 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竊心이 없도록 경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東武의 해석을 『東武遺稿』[7] 「四象要目 註解」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臀之精海 魄之所舍也 魄之爲氣 盛大而壯經營 自有方略 則此句之論 少陰人言而特擧太陽人言者 蓋太陽生少陰 而恃其子魄故也 然則以我之短 擧彼之長 以我之長 敎彼之短 同時助成 功歸正 故曰無奪無侈無懶無竊之爲也"

따라서 위의 논리에 의하면 黨與에 단점이 있는 太陽人은 黨與에 장점이 있는 少陰人의 도움으로 黨與를 잘 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어 그렇게 되다보면 太陽人의 臀에도 竊心이 없게 되어 方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竊心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修其身立其命이라 하며 그렇게 되어 太陽人의 方略이 쌓이게 된다면 그건 大人의 方略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위에서 언급된 『東武遺稿』[7]의 내용과 비슷한 『格致藁』[8]의 내용을 예로 들어본다.

"一物止也 一身行也 一心覺也 一事決也 勤以止也 能以行也 慧以覺也 誠以決也"

여기서 止와 勤은 居處, 行과 能은 黨與, 覺과 慧는 交遇, 決과 誠은 事務에 있어서의 속성과 덕목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때, 少陰人은 "一身行也 能以行也"(이는 臀에 竊心이 없어야 가능하다.)에 의해서 黨與에 능하게 된다. 그런데 黨與에 능하지 못한 太陽人은 黨與를 잘하는 少陰人의 모습을 보고 배워 "能以行也" 함으로써 黨與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竊心(竊物也)을 가지게 된다면 黨與에 능하지 못하게 되어 거기에서 暴怒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太陽人은 "能以行也"하지 않아 黨與에 능하지 못한 少陰人(懦人;棄義而偸逸者)이 아닌 黨與를 잘 하고 있는 少陰人과 같이 더불어 하는게 좋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Table 2. The Mechanism of 'The Interior Disease' in each constitution

太陽人	怒力으로 交遇	全好爲雄	放縱之心	不能黨與	怒情暴發	竊心⇒裏病
	修其身立其命	亦或宜雌	能黨與	怒情不暴發	大人之方略	無竊心⇒無裏病
少陰人	喜力으로 黨與	全好爲雌	偸逸之心	不能交遇	喜情浪發	奪心⇒裏病
	修其身立其命	亦或宜雄	能交遇	喜情不浪發	大人之識見	無奪心⇒無裏病
少陽人	哀力으로 事務	全好外勝	便私之心	不能居處	哀情暴發	懶心⇒裏病
	修其身立其命	亦宜內守	能居處	哀情不暴發	大人之材幹	無懶心⇒無裏病
太陰人	樂力으로 居處	全好內守	物慾之心	不能事務	樂情浪發	侈心⇒表病
	修其身立其命	亦宜外勝	能事務	樂情不浪發	大人之威儀	無侈心⇒無裏病

『東醫壽世保元』「四端論」의 "天下事 宜與好人做也 不與好人做則 喜樂必煩也 天下事 不宜與不好人做也 與不好人做則 哀怒益煩也"의 구절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각 체질에 있어 情暴發이 나타나는 원인을 살펴볼 때 惡惡이 無雙한 肺脾肝腎의 능력을 통하여 각각 能한 人事를 행함에 있어서는 哀怒喜樂力으로 가지게 되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能하지 못한 人事부분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頭肩腰臀에 발생하기 쉬운 怠心인 奪侈懶竊心을 修其身 立其命하여 暴怒(偏怒), 暴哀(偏哀), 浪喜(偏喜), 浪樂(偏樂)의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 결국 각각의 肺脾肝腎이 傷하지 않아 裏病도 발생하지 않는 건강한 상태(天生萬民 命以資業 有資業則生 無資業則死)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부연하여 설명하면 결국 裏病이 전혀 없는 상태는 大人의 行(識見, 威儀, 材幹, 方略)이 있는 상태이고 逆으로 裏病의 예방은 大人의 行(識見, 威儀, 材幹, 方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裏病의 발생원인은 臟腑論에서 論한 肺脾肝腎之用의 偏倚過不及에 의한 津膏油液의 손상(削)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를 모든 체질에 대해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한편 知와 行의 배치에 대하여 趙[3]는 表病의 개념은 生理病理的으로 天氣(耳目鼻口)의 영향하의 (膩膜血精) 개념이며, 이는 선천적 요소가 강조되었다고 하고 이를 行(身)의 奪侈懶竊之心(怠行)과 연관하여 설명하였고 裏病의 개념은 심리적으로 나와 타인의 관계이며 生理 病理的으로 人事의 영향하에(津膏油液) 후천적인 四臟四腑의 개념이며 이를 知(物)의 驕矜伐夸之心(邪心)과 연관하여 설명함으로써 본 논문의 관점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朴[4]은 "性情과 表裏病의 관계에서 表病은 性에 의한 것이며, 天(事)과 知(物)의 개념이며, 大同과 博通의 개념이다. 裏病은 情에 의한 것이며, 人(心)과 行(身)의 개념이며 各立과 獨行의 개념이다"라고 하여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본 논문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裏病의 발생기전에 관한 다른 내용이 「太陽人 內觸小腸病論」에 나오는데 "太陽人 意强而操弱 意强則 胃脘之氣 上達而 呼散者 太過而 越也 操弱則 小腸之氣 中執而 吸聚者 不支而 餧也 所以 其病 爲噎膈反胃也"라 하여 太陽人의 裏病證인 噎膈反胃가 油海의 不足에 의한 操의 弱함("油海藏操")에 의해 발생된다고 하였다. 이는 앞에서 밝힌 情暴發에 의해 裏病證이 발생한 후에 津膏油液의 손상으로 인한 구체적인 병리기전에 관해 밝힌 대목이다.

한편 趙[3]는 少陰人 表裏證에 대해서 각각의 심리상태를 밝히고 鬱狂證, 亡陽證, 格陽등의 구체적인 증상이 출현하는 이치에 대해 논한 바가 있으나 그 밝힌 범위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性情에 의한 각 체질의 커다란 두 病證범주인 表裏病證의 발생기전만을 살펴보았으나 이러한 表裏病證이 발생한 후에 어떻게 해서 각 개별병증(예를 들어 少陰人 鬱狂病, 亡陽病, 太陰證, 少陰證 등)들이 腹背의 어느 부위에 나타나고 또 어떠한 性情의 상태와 병리기전에 의해 발생하는가는 추후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Ⅳ. 結論

위와 같이 性情에 의해 表裏病證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기전을 『東醫壽世保元』「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을 통해 알아본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各 體質에 있어서 表病證은 性深着에 의해 발생하며 裏病證은 情暴發(浪發)에 의해 발생한다.

2. 性深着이라 함은 耳目鼻口가 天機를 살핌에 있어 頷臆臍腹의 邪心(驕矜伐夸之心) 때문에 각 체질의 知(籌策, 經綸, 行檢, 度量)가 부족하여 性氣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情暴發이라 함은 肺脾肝腎이 人事를 행함에 있어 頭肩腰臀의 怠心(奪侈懶竊之心) 때문에 각 체질별로 能하지 못한 人事를 行할 때 나타나는 감정상태를 말하며 이로 인해 각 체질의 行(識見, 威儀, 材幹, 方略)이 쌓이지 못하는 것이다.

3. 각 체질별 表病證은 耳目鼻口가 津膏油液海에서 淸氣를 提出하지 못해 결국 神氣血精이 不足해져서 발생되는 病證이라 할 수 있다.

4. 각 체질별 裏病證은 肺脾肝腎이 膩膜血精海에서 淸汁을 吸得하지 못해 결국 津膏油液이 不足해져서 발생되는 病證이라 할 수 있다.

5. 性情에 의한 表裏病證 발생기전에 대한 이해는 病證을 치료함에 있어 用藥法과 調養法 중 調養法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Ⅴ. 參考文獻

1.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1997:91.
2. 곽창규, 손은혜,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사상인 체질병증 중 표병과 리병의 개념규정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1):1-11.
3. 조황성. 성정과 표리증과의 관계.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5(1):49-51.
4. 박성식. 동의수세보원 사상인 표리병증 편명에 대한 소고. 사상체질의학회지. 1994;6(1):81-87.
5. 이수경, 송일병. 『동의수세보원』 태소음양인의 「병증론」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2):1-26.
6. 최의권, 김경요. 사상의학에서의 음양 한열 표리 허실병리의 변용. 사상체질의학회지. 1997;9(1):25-101.
7. 李濟馬 저. 량병무·차광석 역. 東武遺藁. 1판. 海東醫學史, 서울, 1999:99-106.
8. 이제마 원저. 지규용 역해. 동무 격치고역해. 영림사, 서울, 2001:37.